



### 순천 선암사 관음상 “4백년 됐다”

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관음상 진위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관계자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가 나오기전 해중행위자를 종현종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바 있는 비대위는 철저히 조사해 불교와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킨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태고종 총무원도 새로 선출된 주지 상

진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선암사 원통전의 관음상이 진품으로 판정됐다.

순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판별 의뢰를 받은 서울대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원장 홍승환, 이하 서울대 공동기기원)은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관음상의 몸통 부분은 400년, 팔 부분은 410년전에 제작했다고 판정했다. 오차는 표준편차에 근거해 50년 전후.

이같은 결과는 세 번의 측정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시료 준비과정과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비의 변화를 기준치로 보정해 나온 통상적인 방사성 탄소연대(BP)다. 서울대 공동기기원은 이같은 결과를 12월 7일자로 순천지방검찰청과 순천시, 태고종 총무원, 선암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5인으로 구성된 선암사비

### 서울대 공동기기원 진품 판정 비대위, 해중행위자 엄중 처벌

명 스님을 중심으로 태고종립 선암사의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선암사 관음상 진위논란은 지난 8월 일부 재직자들이 가짜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기 시작해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감정을 받았으나 판정을 내지 못했다. 이후 사건을 의뢰받은 순천지방검찰청이 11월 문제를 제기한 재직자, 선암사, 순천경찰서, 순천시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목재인 관음상의 팔 접합 부분과 밑부분 등 2개소에서 2g 정도씩의 시료를 떼어내 서울대 공동기기원에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의를 의뢰했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사찰서 희망의 새해 맞으세요

### 불국사·수덕사·월정사 등 행사 펼쳐

갑신년을 보내고 을유년 새해를 맞는 행사가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경주 불국사(주지 종상),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수덕사는 템플스테이를 겸한 '송년 산사 음악회 및 신년맞이 타종식'을 2004년 31일 오후 4시부터 2005년 12시 30분까지 진행한다. 국보 제49호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수덕사 개신 최조로 야의 산사음악회가 열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전망이다.

'2005년 오대산 비로봉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월정사의 새해맞이 행사는 31일 오후 11시 20분 주지스님의 법문으로 시작한다. 행사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종울림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을 돌면서 자신이 부처님임을 자각하는 탑돌이로 이어진다.

1월 오전 1시 30분부터는 시가 있는 작은 음악회가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리며, 3시부터는 수행과 상생의 소원을 담아 기원문을 작성한다. 이 기원문은 4시 새벽 예불 때 부처님 전에 봉헌된다.

### 음악회·타종식·기원문 작성 등 다채

타종식 및 점등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신년법어와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의 신년인사, 권오량 제7구신도회장의 세계평화와 북녘동포를 위한 메시지 발표, 심대명 총남지사의 신년사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떡국잔치로 추위를 달랜 참

의 감정을 받았으나 판정을 내지 못했다. 이후 사건을 의뢰받은 순천지방검찰청이 11월 문제를 제기한 재직자, 선암사, 순천경찰서, 순천시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목재인 관음상의 팔 접합 부분과 밑부분 등 2개소에서 2g 정도씩의 시료를 떼어내 서울대 공동기기원에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의를 의뢰했다.

수덕사 재무국장 제현 스님은 "행사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관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은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월정사, 상원사, 비로봉 등지에서 '내 자신의 부처를 바로 보자'를 주제로

새벽예불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비로봉으로 일출맞이 등반을 하며, 상원사에서 떡국을 나눠먹는다.

불국사는 12월 31일 토함산 석굴암 광장에서 '불기 2548년 제야의 종 타종식 및 신년 대법회'를 봉행한다. 1부 예불제에 이어 2부에서는 신년법어, 신년인사, 축원, 발원문, 신년사, 세계평화와 북녘동포를 위한 메시지, 사냥송, 신년축가, 타종 5타, 불꽃놀이로 꾸며진다.

서울 조계사도 31일 오후 10시부터 1월 1일 새벽까지 타종의식과 떡국공양 등이 포함된 '송구영신법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전국 여러 사찰에서 다양한 새해맞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명우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 부여 미암사

## 백제불교 계승위해 진력



미암사가 최근 조성한 길이 27m의 와불. 와불 안에는 부처님 진신사리와 2만여 소불을 모실 수 있는 법당이 마련됐다.

백제 침류왕 때 가난한 한 노파가 손자를 볼 수 있게 해 달라며 큰 바위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린 끝에 감동한 이 노파는 계속해서 불공을 올렸고, 그러자 바위틈에서 끼니때마다 쌀이 나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바위를 '쌀바위'라고 불렀고, 백제 무왕은 쌀바위 옆에 암자를 짓고 미암사(米岩寺)라고 이름 지었다.

부여 시내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 거리에 있는 미암사는 쌀바위

은 미암사 성지화 불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미암사가 5-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지화 불사는 모두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그 첫 단계는 현재 부법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웅전을 헐고 그 자리에 관음전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미 설계에 들어가 있으며, 내년엔 바로 착공할 예정이다. 2단계는 와불, 쌀바위, 관음전 아래 마련한 1천여 평 부지에 극락전, 요사채, 공양간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들 불사는 모두 내년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

### 27m 와불 조성 내부 법당에 진신사리 봉안 10년 불사계획 중부권 최대 성지순례지 목표

전설이 내려오는 기도도량이다. 그런데 최근 쌀바위(충남도 문화재 제371호) 바로 옆에 거대한 와불(佛)이 조성됐다. 길이 27m, 높이 6m, 폭 6m 규모의 크기도 크지만, 와불 발바닥에는 1만6천여 자의 음자가 조각돼 있는 점도 독특하다.

와불 내부에는 법당이 마련돼 있는데, 올 8월 스리랑카에서 모셔왔다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돼 있고, 2만여 소불(小佛)을 모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 놓았다.

미암사 조사이자 대각종 종정인 만청 스님은 "세계 최대 와불을 조성한 것은 백제불교를 계승하고 국운융창과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와불 조성

다. 이들 불사가 끝나면 미암사로 올러오는 입구에 일주문과 포대화상을 조성하는 3단계 불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문 부근에서 와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숲길(등산로)을 만들고 그 주변에 설법전과 교육관을 건립하게 된다. 이 불사가 마무리되면 미암사는 명실상부한 수행·기도도량이자, 중부권 최대의 성지순례지로 떠오르게 된다.

미암사는 대한불교 대각종 총본산이기도 하다. 1996년 대각종을 창종한 만청 스님은 지난 12년 간 이곳에 머물면서 미암사 중흥에 혼신을 바쳤다. 그리고 이제 성지화 불사의 출발선을 나섰다. (041)832-1188, www.ssalbawi.com 글·사진=한명우 기자

## 백양사 성보박물관 개관



### 30일, 서용 스님 특별전

화 했다"며 "단순한 유물전시나 보관보다 도자기 제작, 사찰음식 만들기, 탁본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중이 참여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양사는 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서용 스님 추모 특별전'을 개최한다. 특별전에는 서용 스님의 명당수 사리 4과와 유품 100여점이 전시된다. 서용 스님 유품으로는 스님이 평소 쓰던 발우, 필기류와 당대 선사들과 교류한 서신 등이 있으며 사명대사일분상륙행렬도(8폭, 몽원 김완 작), 외국 황금불상 등 선물로 받은 국내외 소장품이 눈에 띈다.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을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각국 문화재 보호·이용 사례와 한국불교관광사찰 79개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관음사가 제주도라는 문화자원을 제대로 이용하면서 행정기관, 관광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장성 백양사 성보박물관(관장 지선·사진)이 12월 30일 오후 1시 개관한다.

2000년 완공 후 4년만에 문을 여는 박물관은 연면적 600평으로 120평 규모의 전시동과 학예연구실을 갖추고 있다. 완공당시 건축가협회 설계대상을 수상한 전시동은 지붕이 둥근 형태로 대형우리의 회랑을 갖춰 산세가 날카로운 백암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박물관 사무국장 법선 스님은 "수년간 건물 내부 시멘트 독을 빼내 유물손상을 최소화

이준영 기자 (061)392-7502

### "제주불교 활성화 도움 될 것" 관음사 성역화사업 추진

제주 관음사(주지 용주)는 12월 10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한라산 관음사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문홍익)'가 주최한 설명회를 통해 지난 10여년 계획해온 성역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음사 주지 용주 스님, 김영훈 제주시장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성역화사업의 취지를 설명한 관음사 회주 종원 스님은 "성역화사업은 제주불교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사업 전체와 연결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웅전 등의 건물을 고려중기 이전 건축양식으로 신축하고 연구, 교육, 훈련, 문화공간으로 꾸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을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각국 문화재 보호·이용 사례와 한국불교관광사찰 79개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면서 "관음사가 제주도라는 문화자원을 제대로 이용하면서 행정기관, 관광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제주사찰문화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 천안 목천 송광사 개원법회



충남 천안 목천읍 송광사(주지 우성)는 12월 12일 법당 개원식 및 아미타불 점안법회(사진)를 봉행했다.

30여 평 규모의 송광사는 법당과 상당실 등을 갖춘 포교당으로, 매달 세 차례의 정기법회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민 포교에 주력하게 된다.

우성 스님은 "누구나 편안하게 기도·수행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찰로 바꾸어 나갈 생각이며 복지시설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041)556-2108 한명우 기자

Btn 불교TV

##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월 08:20 / 13:10 / 19:30  
일 21:50

"비로나자 부처님은 시방삼세(十方三世) 하나이라. 온 우주(宇宙)에 충만(充滿)하여 없는 곳이 없으므로 가까이 곧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알라."

한국밀교의 중흥중단인 진각종에서 교육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혜정정사의 유쾌한 강의!

밀교의 기본교리와 더불어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구체적인 수행법에 대해 불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불교TV 제작부 ☎ 02-3270-3451~3457 www.btn.co.kr